

문화일보 사회

기사 게재 일자 : 2021년 07월 08일

☞ 프린트 ☒ 달기

경기북부 접경지역 시·군 국·도비 확보전 나서...과주 146억 원, 포천 182억 원 확보

오명근기자 omk@munhwa.com

경기 북부지역 시·군들이 특수상황지역(접경지역) 개발사업을 위한 국비를 지원받는 등 각종 신규사업에 따른 국·도비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.

8일 경기 북부지역 각 시·군들에 따르면 파주시는 정부가 공모한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에 선정돼 국비 146억 원을 확보했다.

시가 정부 예산을 확보한 내년도 특수상황지역 지원 신규사업은 ▲야당~상지석 동측 연결도로(60억 원) ▲캠프하우스 야구전용구장 건립(24억 원)▲법원 초리골 도로확포장(58억 원)▲과주 5리 행복마을 조성사업(4억 원) 등이다.

현재 추진 중인 특수상황지역 지원 계속 사업으로는 ▲과주~부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▲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▲과주 둘다리 문화마을 ▲과주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이다.

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들 신규사업에 국비(최대 80%)가 지원됨으로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포천시도 올 상반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121억 원,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6억 원,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5억 원 등 모두 182억 원의 국·도비를 확보했다.

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는 ▲시도 1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(43억 원) ▲일동 청소년문화의 집·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(78억 원) 등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.

특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되는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은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함께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.

동두천시의 경우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 국비 지원금으로 올해 산림치유자연누림조성 152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도 생연공유누리 센터 조성 10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.

구리시는 최근 3년 동안 중앙부처와 경기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지난해 청년·중장년 창업 활성화 사업 등 75개 사업에 선정돼 204억 원의 국·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.

의정부=오명근 기자 omk@munhwa.com

Copyright © 문화일보. All Rights Reserved.